

간호 대학생의 성격유형별 학업능력과 스트레스

차남현^{1*}

¹강원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Learning ability and Stress by Character typ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Nam-Hyun Cha^{1*}

¹Nursing Department, Health Science College, Kangw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이 지각한 성격유형별로 학업능력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행하였다. 대상자는 총 209명으로 2012년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성격유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학년이었고, 학업능력에는 학년, 종교, 학교성적, 경제상태, 스트레스 해소방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는 학년, 학교성적, 거주상태가 유의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간호 대학생이 지각한 성격유형과 학업능력,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격유형과 학업능력이 강한 음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업능력과 스트레스간에도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성격유형이 B형일수록 학업능력이 높아지며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학업능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성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성격유형 A형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A는 학습능력과 스트레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 Adj R² 은 8.4%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 대학생의 학습능력을 이해하고 성격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용하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learning ability and stress according to the character typ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 total of 209 subjects were selected by convenient sampling.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from November 2 to 20, 2012. Th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 type, learning ability and stres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as follows. The character typ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rade ($F=6.551, p<.036$). In addition, the learning abili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grade ($F=7.059, p<.001$), religion ($F=4.651, p<.001$), school record ($F=7.667, p<.001$), economic status ($F=7.700, p<.000$) and methods of reducing stress ($F=2.531, p<.030$). Stre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grade ($F=7.414, p<.001$), school record ($F=4.776, p<.009$) and cohabitation ($F=9.989, p<.000$). A nega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character type and learning ability, and between learning ability and stress. 8.4% of the variance was observed in character type A, which was explained by the learning ability and stress. These findings may be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learning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developing more specific programs regarding personality and stress control.

Key Words : Life stress, Learning, Nursing, Personality,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타 학과생보다 여유있는 대학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기 중에 강의와 실습을

함께 이수하여야 하는데, 강의는 2배수로, 실습은 학점의 3배수로 진행되므로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학업에 대한 압박감의 강도는 타 학과 학생보다 크다. 또한, 실습지가 여의하지 않으면 방학 중에도 실습을 가야 하는 등, 학기 중이나 방학 모두 타 학과생보다 바쁘게 생활을 할

*Corresponding Author : Nam-Hyun Cha(Kangwon Univ.)

Tel: +82-10-9248-1422 email: yeoreo@kangwon.ac.kr

Received August 20, 2013

Revised (1st October 21, 2013, 2nd October 28, 2013)

Accepted December 5, 2013

수 밖에 없고 학과 구성 성별이 대부분 여학생들이어서 학과 성적에 대해 경쟁심리가 높다. 이러한 학습환경은 간호대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부담감은 대상자가 어떤 성격 유형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받아들이는 강도에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성격이란 개인의 요구와 개인을 둘러싼 환경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며[1], 인간의 행동성향을 설명하는 태도, 감정, 사고와 인지방식 등의 심리적 특성이다. A형 성격은 일을 도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경쟁적인 성취감을 추구하며 공격성과 적대감을 보이고[2], B형 성격은 태평하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의 유형을 말한다. 따라서 A형 성격은 B형 성격보다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고 외향적이나[3], 스트레스 대처에 적극적 대처방법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이런 이유로, 강의와 실습의 이중적인 부담감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간호 대학생에게 성격유형이 학업능력과 상관성이 [5,6]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 현장에서 대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다. 특히, 간호학과는 경우 국가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도 하지만, 4년 동안의 학교성적이 취업으로 연결되기에 학생들은 학교 성적을 중요시하고 학업성취도에 경쟁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성적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지능과 적성의 특성이 중요하지만, 성격과 불안 등이 정서적 측면에서의 영향요인이며[7], 성격특성과 학업성취 사이에 적지 않은 관계가 있다[8]. Myers[9]또한, 성격유형이 학업성취를 좌우한다고 하였듯이 성격유형과 학업성취 능력은 관련성이 높다.

공부에 대한 압박이 있을 때 성격유형별로 극복해내는 능력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성취감을 추구하는 A형의 경우 학습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응해 가며 실패 상황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10]. 왜냐하면, 이들은 높은 학습동기와 성취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난관에서도 잘 대처하고자[11] 노력할 것이다.

초기 성인기에 있는 대학생은 심리적 갈등과 역동으로 감정의 변화가 심한 시기인데, 간호 대학생들의 성격유형은 어느 타입이 있는지 확인하고 성격유형에 따라 학습 능력 정도와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다른지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사료되었다. 국내외 연구경향은 애니어그램과 MBTI를 이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으나, 성격유형으로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어 더욱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성격유형에 따른 학업성취 능력 및 스트레스와의 차이를 보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성격유형을 알고 자

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교수는 학생의 성격유형을 파악하여 적절한 교수방법을 사용한다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들의 성격유형을 활용하여 성격유형간 학업성취 능력과의 차이와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고 성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므로 학업능력 향상과 증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에 다니는 간호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자신의 성격유형에 따른 학업능력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성격유형이 간호 대학생의 학업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므로 예비 간호사로서의 정서적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간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격유형과 학업능력 및 스트레스와의 차이를 비교한다.
- 2) 간호 대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학업능력 및 스트레스와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 대학생의 성격유형과 학업능력 및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4) 간호 대학생의 성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이 지각한 자신의 성격유형별 학업능력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S시 지역사회에 소재한 간호대학 2곳을 편의 선정하였다. 설문지 응답을 허락한 간호대학생에게 구조적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문지 응답이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209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주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Cohen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하여 유의수준(α)=.05, 회귀분석의 중간 효과크기인

.15, 검정력($1-\beta$)은 .80으로 선정하였을 때 최소인원이 114명으로 산출되었으며 본 연구 대상자는 총 209명이었다.

2.3 연구 도구

2.3.1 성격유형

A-B 성격유형 검사는 Haynes, Levine, Scotch, Feinleib & Kannel[12]이 Framingham Heart Study에서 개발한 정신사회성 척도(TABP) 성격유형 척도를 Jang[13]이 번안한 것으로 총 10개의 문항, 5단계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개인이 경쟁적 추동, 시간 긴박감 및 일에 대한 압력의 지각을 평가하는 자기보고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확실히 그렇다 5점”으로 점수 범위는 최저 5점에서 최고 50점까지이며, 중앙값 보다 높은 값을 가진 사람은 A형 성격유형의 경향을 나타내며, 중앙값 이하인 사람은 B성격 유형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Jang[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0$ 이며 본 연구의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37$ 이었다.

2.3.2 학업능력

학업능력은 Kim[14]이 개발한 회복탄력성 검사지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9문항으로 학습능력을 개인의 내적특성과 외적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학습 조절, 친구지지, 자기통제, 긍정적 태도, 과제 책임감, 부모지지 등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본 도구는 Likert 척도로 “0= 전혀 없었다”에서 “4= 매우 자주 있었다”로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116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능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 개발시 각 요인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8-.72$ 사이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4$ 이었다.

2.3.3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는 Cohen, Kamarck와 Mermelstein [15]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Park과 Seo[16]가 번안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부정적 지각과 긍정적 지각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이며 “0= 전혀 없었다”에서 “4= 매우 자주 있었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0점에서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지각에서 5문항은 역 채점하였다. Park과 Seo[1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부정적 지각이 Cronbach's $\alpha = .77$, 긍정적 지각 Cronbach's $\alpha = .74$

이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4$ 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에 대한 프로토콜 교육을 받은 연구 보조원이 설문지를 배부하고 대상자가 스스로 기록하게 하였으며, 설문지 이해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에게 직접 읽어주고 이해시킨 후 답하게 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250부 배부하여 215부가 회수되었고(86%),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9부(83.6%)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15.0을 이용하여 연구목적과 측정변수의 특성에 따라 통계처리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격유형과 학업능력 및 스트레스와의 차이검정은 χ^2 , t-test 와 ANOVA를 시행하였고, 유의한 효과에 대해서는 Tukey 사후검정으로 사후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변수간 관계를 검정하기 위해 피어슨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격유형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을 선별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자 179명(85.6%), 남자 30명(14.4%)로 여대생이 많았고, 학년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형제서열은 첫째가 98명(46.9%), 막내 69명(33.0%), 중간 35명(16.7%)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51.2%) 무교라고 응답한 대상자 102명(48.8%)보다 많았으며, 혈액형은 B형이 64명(30.6%), O형 63명(30.1%), A형 57명(27.3%), AB형 25명(12.0%)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응답인 학교 성적과(65.2%) 경제상태는(71.3%) 대부분 중간이라고 응답하였으며,음주는 한다는 학생이 더 많은 반면(60.4%), 흡연은 대부분이 안하는 것으로 답하였다(96.2%). 거주상태는 대부분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었

으며(89.4%), 가족과의 만남횟수도 1달에 2-3회(43.0%), 수다(23.0%), 음악감상(17.2%), 운동(6.4%) 순으로 나타났다. 이성친구는 대부분이(81.8%) 없다고 응답하였다 [Table 1].

[Table 1] Differences in Character type, Earning Ability and Stress of the Subjects

(N=209)

Characteristics	Subcategories	Total	A type	B type	$\chi^2(p)$	Learning ability		Stress	
		(n=209)	(n=158)	(n=51)		t or F(p)	t or F(p)		
		n(%)	n(%)	n(%)		Mean(SD)	Mean(SD)		
Gender	M	30(14.4)	23(4.6)	7(13.7)	.017	73.79(14.65)	-0.98	20.50(4.91)	-1.003
	F	179(85.6)	135(85.4)	44(86.3)	(.991)	74.12(17.12)	(.922)	21.56(5.45)	(.317)
Grade	1	59(28.1)	40(25.3)	19(37.3)		78.60(13.96)a		19.66(5.25)a	
	2	66(31.7)	45(28.5)	21(41.2)	6.551	74.89(16.74)b	7.059	22.98(5.07)b	7.414
	3	49(23.6)	39(24.7)	10(19.6)	(.036)	67.88(18.04)ab	(.001)	21.36(5.35)	(.001)
	4	35(15.6)	34(21.5)	1(1.9)		66.78(17.05)		21.12(5.15)	
Rank between brothers	Firstborn	98(46.9)	68(43.0)	29(56.9)		75.29(17.38)		21.17(4.63)	
	Middleborn	35(16.7)	29(13.9)	6(11.8)	.892	75.05(19.18)	.545	21.68(5.61)	.326
	Lastborn	69(33.0)	55(18.4)	14(27.5)	(.926)	71.59(15.03)	(.703)	21.43(6.02)	(.860)
	Single	7(3.4)	5(0.7)	2(3.8)		75.85(12.06)		23.28(7.78)	
Religion	Catholic	26(12.4)	21(13.3)	5(9.8)		81.88(18.83)a		19.88(4.86)	
	Buddhism	25(12.0)	20(12.7)	5(9.8)	.903	62.45(18.38)ab	4.651	21.20(6.10)	.872
	Christian	56(26.8)	42(26.5)	14(27.5)	(.825)	74.11(14.72)	(.001)	22.25(5.15)	(.481)
	None	102(48.8)	75(47.5)	27(52.9)		74.83(15.35)b		21.38(5.50)	
Blood type	A	57(27.3)	42(26.6)	15(29.4)		76.71(18.32)		21.92(5.95)	
	B	64(30.6)	51(32.3)	13(25.5)	5.391	72.37(17.52)	.788	20.84(4.77)	.411
	AB	25(12.0)	18(11.4)	7(13.7)	(.021)	73.04(15.54)	(.502)	21.52(5.46)	(.745)
	O	63(30.1)	47(29.7)	16(31.4)		75.12(13.83)		21.49(5.47)	
School record	High achieving	38(18.2)	29(19.0)	9(17.6)		74.21(16.58)a		21.62(5.53)	
	Middle achieving	137(65.5)	101(63.9)	36(70.6)	3.555	76.47(16.36)b	7.667	20.69(4.81)a	4.776
	Low achieving	34(16.3)	27(17.1)	7(11.8)	(.061)	64.09(15.44)ab	(.001)	23.82(6.71)b	(.009)
Economic status	Live in affluence	18(8.6)	11(7.0)	7(13.7)	.590	85.47(13.12)a	7.700	21.73(5.93)	.260
	Live in average	149(71.3)	114(72.2)	35(68.7)	(.556)	78.12(15.80)b	(<.001)	21.30(4.94)	(.903)
	Live in bad	42(20.1)	33(20.8)	9(17.6)		71.02(17.32)c		21.23(6.14)	
Drinking	Yes	126(60.4)	94(59.5)	32(62.7)	5.047	76.32(16.23)	.784	21.13(5.14)	1.096
	No	83(39.6)	64(40.5)	19(37.3)	(.168)	71.80(18.04)	(.442)	20.53(5.01)	(.352)
Smoking	Yes	8(3.8)	6(3.8)	2(3.9)	1.082	66.00(18.33)	1.050	23.12(10.00)	.492
	No	201(96.2)	152(96.2)	49(96.1)	(.781)	74.23(16.85)	(.372)	21.40(5.16)	(.688)
Cohabitation	Dormitory	187(89.4)	143(90.5)	44(86.3)		75.02(15.95)		18.24(4.52)	
	Board oneself	18(8.7)	12(7.6)	6(11.8)	7.525	64.72(18.41)	2.498	20.53(4.49)a	9.989
	With family	4(1.9)	3(1.9)	1(1.9)	(.184)	74.66(39.27)	(.061)	19.47(4.60)b	(<.001)
Number of family meeting	Daily	5(2.4)	3(1.8)	2(3.9)		64.60(18.07)		21.20(3.27)	
	1/week	14(6.8)	11(7.0)	3(5.9)	-.061	83.78(16.75)	2.567	24.61(5.63)	1.915
	2-3/month	90(43.0)	66(41.8)	24(47.1)	(.952)	75.00(18.35)	(.056)	20.81(4.92)	(.128)
	2-3/semester	100(47.8)	78(49.4)	22(43.1)		72.38(14.85)		21.49(5.75)	
Methods of reducing stress	Sleeping	85(40.7)	67(42.4)	18(35.3)		73.52(15.10)a		21.87(4.74)	
	Talkativeness	48(23.0)	37(23.4)	11(21.6)		77.89(16.99)		20.02(4.64)	
	Exercise	13(6.4)	12(7.6)	1(1.9)	.738	84.41(16.31)ab	2.531	20.38(1.75)	1.639
	Listen to music	36(17.2)	22(13.9)	14(27.5)	(.692)	71.73(19.06)b	(.030)	22.08(6.53)	(.151)
	See the movie	7(3.4)	4(2.6)	3(5.9)		72.42(10.04)		19.71(7.06)	
Other sex friend	Others	20(9.3)	16(10.1)	4(7.8)		66.21(16.11)		23.36(7.20)	
	Yes	38(18.2)	28(17.7)	10(19.6)		74.66(18.70)	.196	21.11(5.93)	-.365
	No	171(81.8)	130(82.3)	41(80.4)	.738	74.07(16.31)	(.845)	21.46(5.29)	(.716)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격유형, 학업능력과 스트레스와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성격유형, 학업능력과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성격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은 학년($F=6.551, p<.036$)이었고, 학업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학년($F=7.059, p<.001$), 종교($F=4.651, p<.001$), 학교성적($F=7.667, p<.001$), 경제상태($F=7.700, p<.000$), 스트레스 해소방법($F=2.531, p<.030$)이었다. 또한, 스트레스에 유의한 항목은 학년($F=7.414, p<.001$), 학교성적($F=4.776, p<.009$), 거주상태($F=9.989, p<.000$)이었다. 성격유형은 A, B형 모두 2학년, 1학년, 3학년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업능력과 스트레스에 유의한 항목에 대해 사후분석을 한 결과, 학업능력은 3학년보다 1,2학년이 높았고, 종교는 불교를 가진 학생보다 천주교를 가진 학생의 학업능력이 높았으며, 학교성적은 낮다고 응답한 대상자 보다 높다고 중간이라고 답한 대상자의 학업능력이 높았다. 또한, 대상자가 주관적인 경제상태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학업능력이 높았으며,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수면이나 음악 감상을 하는 대상자보다 운동을 하는 학생이 학업능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에 대해 사후분석한 결과, 1학년보다 2학년이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이 중간보다는 낮은 학생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상태는 자취를 하는 학생이 기숙사나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1].

3.3 대상자의 성격유형에 따른 학업능력과 스트레스와의 차이

연구 대상자의 성격유형에 따른 학업능력과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은 학업능력($t=6.114, p<.014$)이었고,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3.4 대상자의 성격유형, 학업능력과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과 학업능력 및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격유형은 학업능력($r=-.140, p<.01$)과 강한 음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업능력 또한, 스트레스($r=-.354, p<.001$)와 강한 음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2] Differences in Learning ability and Stress of the Subjects by Character type

Characteristics	Learning ability		Stress	
	Mean± SD	t(p)	Mean± SD	t(p)
A type	79.28 16.97	6.114 (.014)	21.18 4.77	-.059 (.804)
B type	73.99 16.05		22.09 4.78	

[Table 3] Correlations among Subject's Character type, Learning ability and Stress

Variables	Character type	Learning ability	Stress
Character type	1		
Learning ability	-.140 (.009)	1	
Stress	.015	-.354 (<.001)	1

3.5 대상자의 성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성격유형 B형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성격유형 A형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 A형에 유의한 변수는 학습능력과 스트레스이었고 모형의 설명력 Adj R² 은 8.4%이었다. [Table 4].

독립변수에 대한 상관분석을 한 결과, 상관계수가 0.8 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러나, 케이스 진단시 절대값 3보다 큰 이상점(outlier) 1개를 제거한 후 앞의 요인을 입력(enter)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ston을 이용하여 오 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차의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1.827 로 검정통계량(1.74)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Tolerance(공차한계)가 0.1 이하이거나 VIF 값이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회귀모형은 성격유형 A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습능력($\beta=.288, p<.01$)과 스트레스($\beta=.299, p<.001$)이었다. 본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²)는 .084로 나타났다.

[Table 4] Predictive Variables for Subject's Character type

Variables	Type A			Type B		
	Constant	Learning ability	Stress	Constant	Learning ability	Stress
B	22.002	.067	.250	26.772	.073	-.086
S.E.	2.441	.019	.070	8.454	.067	.235
β		.288	.299		.181	-.061
t(p)	9.013 (.000)	3.463 (.001)	3.590 (.000)	3.167 (.003)	1.090 (.281)	-.366 (.716)
Adj R ²		.084			.048	
F		8.221			1.214	
p		.000			.306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고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에 부담감 등을 가지고 생활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유형에 따라 학업 능력과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성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격유형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년에 유의하였는데 2학년, 1학년, 3학년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2학년도 올라가면서 전공기초 과목으로 배우므로 교양과목을 위주로 하는 1학년때 보다는 성격유형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나 생각되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미 접했던 저학년에서의 학업 부담감을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생겼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별 학업능력은 저학년일수록 높았고 학교 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상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학업능력과 학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온 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격유형과 차이가 약해진다는 Myers[9]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학문의 초입 단계에서 저학년일수록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기 때문과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자신감과 성취감이 높아져 학업능력도 비례하여 증가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경제상태 수준이 높을수록 공부할 수 있는 여건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과 관련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학년일수록 학업에 대한 동기조성 노력이 필요하며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장학금 지급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일반적 특성별 스트레스는 2학년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높고 성적이 낮으며 자취를 하는 학생일수록 높았다. 이는 1학년 때는 교양과목이 주로 많기 때문에 과목에 대한 부담감 없이 생활하다가 전공기초과목으로 들어오는 2학년 때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학과 성적이 낮을수록 경쟁에서 뒤쳐지는 느낌이 가중되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부모님과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은 공부를 하는데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지지자원이 있는 반면, 자취를 하는 학생은 눈에 보이는 숙식문제 및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정서적 문제까지도 혼자서 해결해야 하니 스트레스를 더욱 느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학교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2학년 전공기초과목을 1학년도 일부 이동시켜서 전공과목에 대한 심적, 물리적 위밍업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학과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자취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부모와 학교의 지지자원적 배려가 요구된다. 즉, 학부모는 학생들과의 잦은 연락을 통해 학생의 정서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돕기 위한 정서적,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학교에서는 학생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와 상담을 통한 문제 확인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경주된다 하겠다. 한편으로, 학생들의 스트레스 완화 및 해소를 위한 운동 및 취미활동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대상자의 성격유형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학습능력으로 성격유형 B형일수록 A형보다 학습능력이 좋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고, 학업능력이 좋을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격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5-6]. 또한, 성격유형 A형이 스트레스가 높다는 연

구[1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성격유형 A는 성취욕구와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 등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 학업능력에 도움[17]이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서두르지 않고 마음을 평안히 하는 성격유형(B형)이 학습능력에 도움이 됨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업능력이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성격유형 B형처럼 시간의 긴박감이나 조급함이 없도록 마음을 평안히 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며, 스트레스가 완화될 때 학습능력도 향상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겠다. 상관관계에서 성격유형과 학업능력, 학업능력과 스트레스간 관련성이 있게 나올 회귀분석한 결과, 간호 대학생의 성격유형 A형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학습능력과 스트레스 모두 성격유형 A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 $Adj R^2$ 은 8.4%이었다. 즉, 성격유형 A형인 경우 학습능력과 스트레스와 관련성도 높고 성격유형 A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향계 [18]의 연구를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A형은 환경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데 매우 큰 욕구를 가지고 있어 통제감에 위협을 느낄 때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에서 A 성격유형 반응 양상을 나타내므로 이로 인해 스트레스에 예민할 수 밖에 없고 스트레스를 쉽게 받다 보니 학업능력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학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유형 A형 대상자에게는 이들의 성격유형을 동기유발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전환을 하고 마음을 낙관적으로 가짐으로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는[18] 환경제공 및 행동수정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또한, 스트레스는 학교적응에 부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및 관계개선 프로그램 적용 개발도 필요하다.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격유형에 따른 차등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학생들의 성격유형에 따라 A형에게는 조급함과 성취욕구 달성을 위한 긴박함, 공격적인 태도를 서두르지 않고 성격유형 B형과 닮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단계별로 일을 수행하고 느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 교육과 이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 때, 학년, 성적,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활동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운영함이 학업능력의 효과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공격적인 성향을 좀 더 여유로운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정서적인 프로그램과 경쟁적 환경을 지양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

함을 제기하며,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올리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중재연구가 후속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대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추후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임상 현장에서 환자 및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건강한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A. Caspi, D. J. Bem, "Personality continuity and change across the life course, in L. A. Pervin(Ed.).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Guilford press, 1990.
- [2] T. M. Begley, C. Lee, J. M. Czajka, "The relationships of type A behavior and optimism with job performance and blood pressure",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15(2), pp215-227, 2000.
DOI: <http://dx.doi.org/10.1023/A:1007782926730>
- [3] Y. S. Lee,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personality type, learning pattern and learning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1995.
- [4] J. Y. Park,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haracter type A & B ego-identity and stress cop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University, 1995.
- [5] B. G. Ah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type on student performance in the introductory economics course",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13(2), pp137-158, 2006.
- [6] A. L. Ziegert, "The role of personality temperament and student learning in principles of economics: Further evidence",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200, pp302-322, 2000.
- [7] K. H. Yun,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3.
- [8] H. S. Lee, "Dimensional theory of personality", *Journal of Humanities*", 7-8, pp1-27, 1993.
- [9] I. B. Myers, "Introduction to type(3rd ed.)",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80.
- [10] A. J. Martin, H. W. Marsh, R. L. Debus, "A quadrapole need achievement representation of self-handicapping and defective pessimism",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8(3), pp583-610, 2001.

- [11] K. K. Brown, "Type A behavior pattern in Black college women: Implications for academic adjustment and emotional well-be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College, 2005.
- [12] S. G. Haynes, S. Levine, N. Scotch, M. Feinleib, W. B. Kannel,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factors to coronary heart disease in the framingham study: 1. methods and risk factor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5(5), pp362-383, 1978.
- [13] S. K. Jang, "A-B personality type, preknowledge of stressor and stress streng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1983.
- [14] N. R.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he scale of academic resil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University, 2008.
- [15] S. Cohen, T. Kamarck, R. Mermelstein,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pp385-396, 1983.
- [16] J. H. Park, Y. S. Seo, "Validation of the perceived stress scale (pss) on sample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9(3), pp611-629, 2010.
- [17] D. S. Kim, "Analysis on high school students'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their behavior patterns of A-and B-typ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6.
- [18] H. G. Lee, "Effect of A/B behavior type and optimistic type on stress and schoo adjus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sung University, 2001.

차 남 현(Nam-Hyun Cha)

[정회원]



- 1996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산업보건학 석사)
- 2002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간호학 박사)
- 2006년 3월 ~ 2012년 8월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2년 8월 ~ 현재 :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학, 산업간호학, 한방간호학